

情報化시대와 暗號

암호一. 이 낱말이 가져다주는 즉각적인 반응은 007과 같은 諜報를 연상케하며 일반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낱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.

그러나 현재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암호는 우리와 매우 가까우며 필요불가결한 것임에는 틀림없다.

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암호사용의 관행속에 살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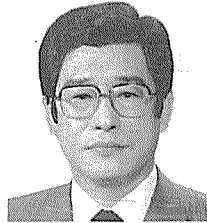
가장 가까운 예로서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(Cash Dispenser)로부터 현금인출시에 사용하는 네자리의 번호를 들 수 있다.

또한 전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암호에는 패스워드(Password)가있다. 이것은 전산기를 단말기로서 공동이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며 정확한 패스워드의 입력이 없는 不正 利用者의 작업지시는 거절당하게 된다. 따라서 암호는 일상생활에 깊은 관련을 맺은 현대사회의 필수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.

한편 전산기는 기업의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, 기억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코드(Code)化되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내용을 쉽게 판독할 수는 없다.

그러나 전산지식을 가진 사람이면 코드化된 데이터정도는 용이하게 그내용을 판독할 수 있다. 따라서 이러한

권영달
금융결제관리원 상무이사



것은 암호라고는 할 수 없다.

즉 중요한 데이터의 단순코드化만으로는 외부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무방비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.

전산기내부의 데이터가 도난·漏洩·變更 등 사태발생시는 이로인한 일대혼란이 야기될 것은 明若觀火한 사실이다.

따라서 제3자 또는 외부로부터 기밀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전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또하나의 중요한 임무라 하겠다.

그러나 현실적으로 데이터의 안전보호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, 특히 데이터의 전송·운송 또는 보관중에 유출되는 위험성이 크다.

때문에 기밀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되어야 할 것이며 더욱이 그것은 不當人手者에 의한 해독이 거의 불가능한 방법으로 가공되어야 할 것임에는 틀림없다.